

지역 매아리

완주 다문화 인식개선 인형극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보육분과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을 실시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보육분과는 지난 한 달간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 '호랑이의 친구가 된 돼지' 공연을 권역별(삼례, 봉동, 이서, 용진)로 주1회 월 4회에 걸쳐 실시했다.

총 530여명의 어린이들이 인형극을 관람했으며, 이번 공연은 겉모습은 달라도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등장한 캐릭터와의 포토존 촬영시간도 가지면서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보육분과 위원들은 "앞으로도 지역자원과 연계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매개체를 통한 교육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취약계층 빨래봉사 실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김제지구 성덕봉사회는 6일 성덕면사무소 앞마당에서 성덕면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빨래 봉사를 실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빨래 봉사는 대한적십자사 성덕봉사회 회원 및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해 무렵고 습했던 지난 여름동안 장롱 속에 묵혀 놓았던 뽀뽀한 이불, 옷가지 등을 수거해 깨끗하게 세탁 후 다시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한적십자사 성덕봉사회 김영숙 회장은 "관내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집에 햇볕이 들지 않아 빨래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취약계층을 위해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면서 "다가올 동절기 뽀뽀송송한 이불을 덮고 따뜻하게 주무실 어르신들 생각을 하니 너무 보람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빨래 봉사와 더불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회 김제지구 성덕봉사회, 성덕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성덕면 새마을 부녀회 3개 단체에서 그간 성덕면사무소 신청순 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청년 외식창업의 꿈 '날갯짓'

완주, 키움식당 4차 참가팀 '랑식당' 한달간 운영 시작 유린기 국수·달걀 등 판매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청년키움식당 4차 참가팀이 운영을 시작했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청년키움식당을 책임질 4차 참가팀은 2명의 대학생들이 꾸려가고 있는 랑식당이다.

'순남이랑 세프'의 의미를 가지고, 손님과 소통하며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은 팀명이다.

랑식당의 주메뉴는 유린기국수, 유린기달걀, 로컬카레유린기달걀밥이다.

유린기는 바삭하게 튀겨낸 달걀기에 야삭한 채소, 입맛 돋우는 비법 특제 소스가 어우러진 음식이다.

또한, 그간 참가팀들이 선보인 메뉴 중 인기메뉴였던 소불고기달걀, 소불고기국수, 비빔국수, 풍국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청년키움식당 4차 참가팀이 운영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영업에 앞서 외식업 전문가들과 함께 메뉴 개발과 식당 경영 등 랑식당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주관단체인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원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 창업자들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급변하는 외식창업 분야의 성공열쇠는 서비스 강화, 맛의 차별, 새로운 마케팅 등이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청년키움식당은 고객들과 소통하고 피드백하며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추석명절 부정축산물 유통 뿌리뽑는다

김제, 21일까지 특별단속 돌입 중량 미달·원산지 등 중점

김제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관내 축산물 생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추석명절을 맞아 축산물 이력제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축산물 영업장 316개소 가운데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업소 및 행정처분 이력업소 30개소를 선정해 전북도, 김제시와 명예축산물 위생감여했다.

영농철 시작, 농기계 임대사업소 연장 운영

완주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연장해 토요일에도 임대 및 반납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돕고 주말에 농기계 임대와 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연장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다.

시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단속으로 축산물취급업소의 경각심 고취 및 위해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물의 고의적 중량 미달제품의 생산·유통 여부 및 냉동식품의 냉장 포장유무로 생산·판매여부, 포장유무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

수, 유통기한 위반 등 위해 여부 확인 및 판매장의 거래내역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유전자 일치여부 등 쇠고기 유통이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축산물 소비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및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석 명절 우리 축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종별로 가격의 0.3~0.5%로 이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전에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임대관련 문은 완주군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290-3306(290-3309), 서부 290-3270, 남부 290-3308)로 하면 된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영농의 편리성을 증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에서 운영중인 첨단농업 종자사업소에 국내외에서 양액재배 미니씨감자 생산기술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방문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김제농업 벤치마킹 선진지로 부상

미니씨감자 생산기술 각광 국내외 내방객 200명 돌파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 운영중인 첨단농업 종자사업소에 국내외 농업관련 교수, 연구원, 학생, 농업인 등 양액재배 미니씨감자 생산기술을 벤치마킹 하기 위한 방문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2월 경기도 양주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를 시작으로 3월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육종연구소, 4월 충청남도 아산시 농업마이스터대학 친환경채소 전공교육생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 신

농촌지도공무원, 9월 KOPIA 시범마을 케냐, 캄보디아 2개국 농업인 등 내방객이 200명을 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종자산업 특구와 연계한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는 전국 어디에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건전하고 튼튼한 무병묘 씨감자 생산 기지이며 미니 씨감자 양액재배 생산온실 9동(6,864㎡)에 추백, 수미, 추동, 대지, 새봉 5개 품종, 봄·가을 연 2회 150만개의 감자 종자를 생산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케냐, 캄보디아 2개국 농업인 30여명의 벤치마킹을 돕기 위해 종자사업소를 방문한 한국농업연수원 강양원 팀장은 "무병묘 미니씨감자 생산 과정을 조지배양에서 양액재배까지 지켜보면서 김제시 농업인들이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를 알게 됐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국내 다른 지역 및 해외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구,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파란불

주민자치위, 창원 자산동 방문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승일)는 6일 자매결연 도시인 창원시 자산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정보교류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양 도시 간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3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산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을 안내받고 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체험하는 한편, 인적·물적 교류 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자산동 방문은 민간 주도의 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상호간 이익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논의를 이어갔으며, 특히 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로 금구면 농·특산물 구매 및 금구면의 주요 농산물 직거래 장

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협의했다.

또한 창원시에서 개최중인 국제사격대회 관람 및 지역명소를 둘러보는 등 지역 문화·체육행사 참여를 통해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정성청 자산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과 우애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서원대 금구면장도 함께 참석해 우호증진에 힘을 실었으며 "주민 중심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그 성과가 주민의 삶에 직접 와 닿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gsan Beer. It features images of wine and beer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맥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It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and prices for the beverages.